

'5·18 외곡 처벌법' 제정 찬성 55%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외곡 발언 논란이 인 가운데 이러한 외곡 발언을 조장,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결과 절반 이상이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3일 tbs 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응답률 6.0%)에게 5·18 외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했다.

이 결과 '매우 찬성'(34.6%)과 '찬성하는 편'(20.4%) 등 찬성 입장이 55%였고 '매우 반대'(15.3%)와 '반대하는 편'(19.4%) 등 반대 입장

대부분 찬성 우세...보수·한국당 지지층 반대 높아

60대 이상·TK·충청권은 찬반 여론 구도 팽팽해

이 34.7%로 집계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20.3%p 높았으며 '보름 또는 무응답'은 10.3%였다.

대부분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나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반대 여론이 높았다. 60대 이상 계층과 대구·경북 및 충청지역에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구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진보층과 정의당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여론이 70% 이상을 보였다. 진보층은

30.6%)와 30대(62.6% vs 27.0%), 20대(58.8% vs 29.3%), 50대(52.5% vs 36.1%)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보수층은 찬성이 34.3%, 반대 55.2%였고 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14.9%, 반대 72.9%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대구·경북과 대전·세종·충청 지역, 60대 이상은 찬반이 팽팽한 구도를 그렸다. 대구·경북은 찬성이 45.9%, 반대 44.2%였고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45.8%, 반대 49.7%로 파악됐다. 60대 이상도 찬성 43.2%, 반대 45.4%로 찬반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뉴시스

佛 노란조끼 시위서 경찰 폭행 복서 징역형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란 조끼' 시위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 복싱 챔피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르몽드, BBC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싱 챔피언을 지낸 크리스토프 데틴제(37)는 지난 1월5일 파리 시위 당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데틴제는 2007~2008년 두 번에 걸쳐 프랑스 프로복싱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며 명성을 얻었다.

파리 형사법원은 13일 데틴제에게 징역 30개월에 집행 유예 18개월을 선고했다. 파리 법원은 데틴제가 12개월의 형량을 '반 자유형' 형식으로 복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자유형은 프랑스의 독특한 사법제도로 낮에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밤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제도다.

파리 법원은 데틴제에게 6개월 간 파리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0유로(약 634만원)를 선고했다.

데틴제는 이날 공판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후회한다"며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나에게 쏟아진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FBI, 연쇄살인범이 그린 희생자 16명 공개

미 연방수사국(FBI)이 13일(현지시간) 연쇄살인범이 그린 희생자 16명의 초상화를 공개했다.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새뮤얼 리틀(79)이 90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후 추가 희생자들을 찾기 위함이다.

CNN에 따르면 FBI는 리틀이 30년 동안 자신이 죽었다고 주장한 90여명 중 일부인 16명의 초상화를 공개했다. 해당 그림들은 리틀이 직접 그렸다.

FBI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이 이 그림을 보고 희생자를 파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해주길 바란다"며 "희생자들에게 이름을 들려주고 그들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답을 줄 수 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인이 그린 초상화를 공개해 피해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과거에도 종종 사용돼 왔으며 최근에도 2명의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됐다는 전언이다.

살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리틀은 지난해 밝혀지지 않은 90여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자백해 화제가 됐다.

그는 1970~2006년 사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휴스턴, 콜리블랜드 등 미 전역에서 살인을 저질렀으며 매춘이나 마약에 연루된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리틀은 살해 위치, 이용한 차량 등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의 그림까지 그릴 수 있었다고 당시 FBI는 전했다.

리틀이 고백한 90여건의 살인 사건이 모두 확인될 경우 그는 미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범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당국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34건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리틀은 현재 캘리포니아에 구금돼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 고문전문 요원 3명 독일서 체포

시리아 정부의 비밀 경찰로 시리아 내전 8년 동안 아사드 정권을 위해 야당인사와 인권활동가들을 체포 고문하는데 종사했던 비밀경찰 고문전문가 3명이 베를린과 독일 프랑스 지방에서 체포되었다고 AP통신과 현지 매체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2일 체포된 이들 가운데 시리아 비밀정보국 간부 한 명은 자기들이 체포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고문하는데 사용하는 수용시설의 책임자로 밝혀졌다고 시리아 관련 국제 인권단체들이 전하면서, 이들의 체포를 크게 환영했다.

이번 검거는 시리아에서 내전 기간 동안 아사드 정권을 위해 저지른 고문과 살인 등 온갖 만행의 책임자들을 국제 수사관들이 추적, 체포한 가장 최근의 성공사례로 크게 환영받고 있다.

베를린 경찰이 체포한 안와르 R(56)은 시리아 총정부국의 고위 관부이며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라티나-테우에서 경찰이 체포한 에이야드 A(42)는 다마스쿠스 지역에서 검문소를 운영하던 특수부대의 일원이었다.

독일 국내법에 따라 성이 완전 공개되지는 않은 이 두 사람은 인도주의적 범죄인 고문 등을 진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와르 R의 부하로 알려진 제 3의 용의자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다고 독일 경찰이 밝혔다.



봄의 전령사 풍년화 '활짝' 14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구수목원에서 봄을 재촉하는 풍년화 꽃망울을 터뜨려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 광주 스쿨미투 2개 고교 교사 9명 불구속기소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촉발된 2건의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 2개 고교 교사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교사 9명 중 2명은 A 고교, 7명은 B 고교 교사이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송치된 1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분했다.

기소된 교사들은 2010년부터 지

난해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여학생을 추행 또는 성희롱 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학생들의 등이나 속옷을 문지르고 껴안는가 하면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사는 "좋아한다"며 늦은 밤 한 여학생의 집 앞까지 찾아가 선물을 건네는 등 이 여학생을 지속해서 따라다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의 교복 단추 하나가 풀려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지나가는 학생을 불러 "나 말고 다른 남자 생각 것 아니냐" 나 보고

싫냐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들은 지각한 학생을 상대로 '왜 늦었냐'며 손으로 학생의 머리카락을 움켜잡는가 하면 정소 시간에 특정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대법원 판례 검토, 검찰 시 민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과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읽지 못한 일부 교사들의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주춘정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 '2018 단체협약' 찬반투표 부결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18년 노사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결국 부결시켰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광주·곡성·평택공장 전체 조합원 2910명 중 2610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무효 8표, 찬성 650표(24.9%), 반대 1951표(74.7%)로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재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29일 제12차 본교섭을 열고 2018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마련된 합의안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합의서 작성, 임금체계 개선, 단체협약 개정, 설비투자, 타이어 성형수당 지급, '2019년 생산운영'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지난해 4월2일 노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체결한 '경영정상화 노사 특별 합의안'에 따라 임금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은 사측이 타이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와 강제퇴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제시한 '인원 전환배치'에 대해 노조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측은 생산량 감소로 올해 공장별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을 생산라인 이동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었다.

임형택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